
 <p>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p>	<h1>보도자료</h1>	<p>작성과</p>	<p>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p>
 <p>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p>	<p>2021년 8월 30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담당자</p>	<p>팀장 김희근 전문관 조민지</p>
		<p>연락처</p>	<p>02-721-1825 02-721-1822</p>

강제동원, 잊혀지는 과거가 아닌 보편적 인권문제이자 역사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생존자 구술기록” 중 일부를 최초 공개하며 제공한 「강제동원 증언전*」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강제동원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 강제동원 증언전 -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시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 / 2021. 7. 17. ~ 11. 7. / 식민지역사박물관
- 또한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납북, 형제복지원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금·납치·의문사 등 국가권력(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을 민족문제연구소와 수행하며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총 24인의 생존자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부터 구술기록집 발간 및 온라인 구술콘텐츠 구축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구술채록 완료한 23인은 일본·중국 등지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로 이번 재단 구술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언에 나선 피해자이며, 1인은 구 위원회* 당시의 구술기록이 있으나, 재단 구술사업 당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증언하며 이전의 구술내용을 더 보강하였다.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재단과 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연구조사 외에도 전시, 교육, 출판, 문화행사 등의 국내외 교류와 지원을 약속하고, 「강제동원 증언전」의 자료를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북 등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과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분야의 민관 협력을 증진시켜 국내외적 연구와 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강제동원이 잊혀지는 과거가 아닌, 우리가 기억해야할 하나의 보편적 인권문제이자 역사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채록 등 추가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공보담당 ☎02-721-1822



일제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좌) 일제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 (우)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이 사 장) 김용덕*

* 前 동북아역사재단 초대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기관소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의거하여 201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조사 및 문화·교육사업, 피해자 추모 및 지원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등을 주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기 관 명: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 대표전화: 02-721-1800
- 누리 집: <http://www.fomo.or.kr/>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 (이 사 장) 함세웅 신부*

*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3대 이사장 역임, 민주화 운동 참여

○ (기관소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1991년에 설립

-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故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설립, 『친일인명사전』 편찬, 강제동원 진상규명 운동, 식민지역사박물관 운영 등을 주관



- 기 관 명: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 주 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3층
- 대표전화: 02-969-0226
- 누리 집: <http://www.minjok.or.kr/>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2021.7.16. (금) ~ 2021.11.7. (일)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Remember the Voice of Victims
Remember the History of Forced Labor**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기록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영화자료관 POW연구회

관람 사전예약 historymuseum.or.kr 문의 02-2139-0437

□ 전시장 모습



강제동원 증언전 입구, 전시 서문



증언 전시 코너 전경(1)



증언 전시 코너 전경(2)



증언 전시 코너 전경(3)



연합군 포로, 중국인 강제동원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1)



유네스코 세계유산(2)



세계유산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 증언전 소개 강제동원 피해자 이력(19인)

■ 재단 제공 자료

연번	동원지	피해자	동원시기	동원경위	제공기관/비고
1	하시마 탄 광 (군함도)	故김삼수 (1922년생)	194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에서 동네주민 160여명과 함께 큐슈 후루카와탄광 강제동원 이후 탈출하였으나 하시마탄광으로 입도함. 1945년 재차 탈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제공
2		故서정우 (1928년생)	194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에서 일을 하던 중 3명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으로 강제동원. 이후 나가사키조선소로 전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日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의 사람에게 (世界の人へ)』 1981년 盛善吉 감독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제공
3		故최장섭 (1929년생)	194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모집담당이 찾아와 직접 군청까지 데리고 감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주국연소구술수집
4		故이경운 (1929년생)	194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 포로) 팔로군 소속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포로 피랍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에 수용되어 강제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日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 제공
5		故이지창 (1919년생)	194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 포로) 일본군에 저항하는 공작조직에 참여했다가 포로 피랍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에 수용되어 강제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日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 제공
6		이정옥 (1926년생)	194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에 가던 중 일본 형사 2명에게 연행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7		손용암 (1928년생) * 최초 공개	194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역 앞에서 사복형사에게 연행되어 홋카이도 소재 탄광 강제동원 이후 다카시마탄광으로 전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
8		故정복수 (1926년생)	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구장에 의해 차출되어 사할린 소재 미쓰비시 계열 탄광 강제동원 이후 다카시마탄광으로 전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연번	동원지	피해자	동원시기	동원경위	제공기관/비고
9	나가사키 조선소	김성수 (1925년생)	194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소재 제과점에서 근무하던 도중 징용장을 받고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가사키시 상대 원폭피해건강수첩 교부 관련 소송(2016) 원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10		김한수 (1918년생)	194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매청(연백전매지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중 차출 나가사키 조선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19) 원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11		故배한섭 (1926년생)	194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쿠오카현 야하타시 소재 야하타화물자동차회사 근무 도중 징용장을 받고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가사키시 상대 원폭피해건강수첩 교부 관련 소송(2016) 원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12	야하타 제철소	故김규수 (1929년생)	194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소에서 일하던 중 징용장을 받고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제철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05) 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술수집
13		故이천구 (1929년생)	194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사와 면서기 등이 찾아와 차출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제철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14		故주석봉 (1924년생)	194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배급을 끊는다는 면 공무소의 협박 이후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13) 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술수집
15		故최영배 (1922년생)	194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서기에 의하여 동원에 차출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제철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13) 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술수집
16	미이케 탄 광 /제련소	류기동 (1918년생) * 최초 공개	194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 순경이 위력으로 모집 신청 후 일방 통보 일본 후쿠오카현 미이케탄광으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
17		손성춘 (1928년생) * 최초 공개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내 일거리를 하러가자는 구장의 말에 속아 따라갔다가 일본 후쿠오카 미이케제련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
18		손중구 (1923년생)	194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직공장에 다니던 중 징용장이 나와 일본 후쿠오카현 미이케 탄광으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국가기록원 제공)
19		이영주 (1929년생) * 최초 공개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의주 압록강변 모래채취에 1년간 국내 동원 귀향 직후인 1945년 2월 마을 구장에게 붙잡혀 일본 후쿠오카 미이케제련소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